

광주·전남 국회의원 지난해 입법성과 '낙제점'

본회의 가결률 14.7% 불과
법안 남발·활동 부진 대부분
대선 줄서기 매몰 의정 뒷전
“지역 현안 해결 힘 모아야”

지난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입법성과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발의로 계류 중인 법안이 대부분인데다, 당내 경선 후유증과 대선에 매몰돼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도 적지 않아 보다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제21대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광주 8명·전남 10명)이 51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이 중 76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 1인당 평균 28.78건을 대표발의했으나 그중 4.22건만이 국회를 통과한 셈이다.

대표발의 법률안 건수에서는 민형배 의원(광산)이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병철 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 52건 ▲이병훈 의원(동남) 43건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 36건 ▲조오섭 의원(북구) 33건 ▲이형석 의원(북구)·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32건 ▲김원익 의원(목포)·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30건 ▲김회재 의원(여수) 26건 ▲송갑석 의원(서구) 22건 ▲이용빈 의원(광산) 21건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17건 ▲윤영덕 의원(동남) 16건 ▲양항자 의원(서구)·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11건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주철현 의원(여수) 6건 등이었다.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입법 건수에서는 김승남 의원이 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오섭·서삼석·소병철·윤재갑 의원 7건 ▲이형석·이병훈 의원 5건 ▲김원익·김회재·이개호 의원 4건 ▲이용빈·민형배·윤영덕·양항자 의원 3건 ▲주철현·서동용 의원 2건 ▲송갑석·신정훈 의원 1건 등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가결률을 보면, 올해 14.7%로 지난 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가결률(12.3%)보다는 높다.

그러나 대표발의 건수의 경우 5개월여의 기간이 더 있었음에도 2020년(520건) 대비 2건에 불과해 활동이 저조했다.

올해는 법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의원은 없었지만, 법안 발의만 남발하고 정작 통과시키진 못해 효율이 떨어지거나, 입법활동이 부진한 경우도 많았다.

94개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의 경우 정작 가결된 법안은 3건에 불과했다. 송갑석 의원도 22건 중 1건만을 통과시켜 가결률이

10% 미만이었다.

신정훈·주철현 의원은 1년간 대표발의한 법안 건수가 단 6건에 그쳤다.

이처럼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있어 저조한 성과와 활동 부진의 이유는 오는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의 원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만연했던 대선후보 간 이해관계에 따른 의원들의 줄서기와 후유증이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의 지역별전에 직결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선후보가 정해진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속으로 경선 양극을 지니고 있는 데다 대선에 매몰돼 있어, 본연의 임무인 입법 등 의정활동에 소홀한 상태”라며 “코로나19와 잇단 대형 선거로 어수선한 정국을 타개하고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성의있는 입법활동과 지역 정치권이 일치단결해 국정과제와 지역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문 대통령 “근본원인 조사·안전대책 강화”

광주 외벽 붕괴 사고 관련 지시
“국민보호 공직기강 확립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붕괴한 사고와 관련해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도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



했다. 이에 앞서 전남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하던 중 23~38층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작업자 6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식 사과를 하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12일 오후 전남매일 본사에서 열린 '제3회 전남매일 신춘문예 골드문학상 시상식'에서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가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전남매일 신춘문예 '골드문학상' 시상식

3개 부문 총 700만 원 수여

한국문단의 역량 있는 문학 신인을 발굴하는 2022 전남매일 신춘문예 '골드문학상' 시상식이 12일 본사 6층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13면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 부문 당선자와 본사 임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소설 부문 당선자 손보경씨(필명 임춘보)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동화 부문 당선자 문채영씨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시 부문 당선자 강일규씨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상패가 각각 수여됐다.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전남매일 골드문학상은 지역 문인들의 등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최고의 상금을 걸고 시상

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이번 신춘문예는 심사위원 선정부터 시작해 무엇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출발점이 될 신춘문예 당선은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딛은 전남매일을 잊지 말고 앞으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발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도, 국고사업 예산확보 '담금질' 3면 | 염주수영장 고객-강사 갈등 6면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로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SURGENTE